

해외파 합류... “카타르행 조기 확정 가자!”

27일 레바논과 카타르WC 최종예선 조별리그 7차전 손흥민·황희찬은 빠졌지만 해트트릭 황의조 ‘든든’

벤투호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 행 조기 확정에 도전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27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9시 레바논 시돈의 사이다 무니 시팔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7차전을 치른다. 이어 내달 1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라시드 스타디움에서 시리아와 8차전을 소화한다. 이번 중동 2연전에서 벤투호는 카타르행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다. 한국은 A조 6개국 중에서 이란

(승점 16·5승 1무)에 이은 조 2위(승점 14·4승 2무)를 달리고 있다. 한국과 3위(승점 6) UAE의 승점 차는 8로 벌어져 있다. 한국이 첫 경기인 레바논전에서 승리하고, UAE가 시리아를 상대로 이기지 못하면 한국의 본선행이 확정된다. 벤투호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해 있다. 중동 2연전에서 앞서 국내와 위주로 터키 안탈리아에서 전지 훈련을 소화한 가운데, 전훈 중 유럽팀을 상대로 치른 두 차례 평가전에서

모두 4점 차 완승을 했다. 아이슬란드를 5-1, 몰도바를 4-0으로 완파해 자신감을 한껏 끌어올렸다. 이제 해외파까지 가세한다. 벤투 감독은 황의조(보르도)와 김민재(페네르바체), 정우영(알사드), 정우영(프라이부르크), 황인범(루빈 카잔) 등 6명의 유럽·중동 리거들을 불러들였다. 비록 부상 중인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올버튼프턴)이 빠졌으나, 센터백 김민재부터 허리의 정우영(알사드)·황인범, 최전방의 황의조까지 벤투호 척추 라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특히 부상으로 최종예선 5, 6차전에 나서지 못했던 황의조의 발끝에 시선이 집중된다. 황의조는 이

번 대표팀 합류 직전 소속팀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폭발했다. 홈에서 치른 레바논과 2차전(1-0 한국 승)에서 결승골을 넣은 권창훈(김천)의 활약도 기대된다. 권창훈은 아이슬란드, 몰도바와 경기에서 연속 골맛을 봤다. 조 4위(승점 5)에 자리한 레바논은 3위 UAE, 5위(승점 4) 이라크와 치열한 3위 싸움을 벌이고 있어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벤투호로서는 최종예선에서 2골씩을 넣은 공격수 수니 사드, 모하마드 크두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레바논과 통산 전적에서 11승 3무 1패로 크게 앞선다. 다만 원정에서 최근 5경기에서 1승 3무 1패로 팽팽했다. 연합뉴스

‘제르소-주민규-링’ 막강 공격진 구축

제주Utd, 조나탄 링 영입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스웨덴 출신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 링(30, Jonathan Ring 등록명 링)을 영입하며 막강 공격진을 구축했다. 제주는 링이 유럽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스탯을 쌓으며 꾸준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선수라고 소개했다. 2021 알스벤스칸(스웨덴 1부리그)에서는 칼마르FF 소속으로 28경기에 출전해 8골 10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링의 주포지션은 오른쪽 윙어로 지난 시즌 오른쪽 측면 공격의 적임자가 없었던 제주에게 새로운 키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제주는 링이 원발 슈팅 마무리 능력이 강점이며, 전술 변화에 따라 왼쪽 측면과 중앙 공격수까지 소화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제주는 링의 영입으로 현재 왼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제르소와의 공격 시너지 효과와 ‘K리그1



제주Utd가 영입한 외국인 공격수 조나탄 링.

득점왕’ 주민규에 대한 집중견제 해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링은 “제주라는 좋은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서 정말 기쁘다”면서 “K리그 무대는 처음이지만 팀에 빠르게 적응한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자가격리를 마친 링은 지난 24일 순천에서 전지훈련 중인 제주 선수단에 합류해 본격 몸담들기에 돌입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루키’ 안나린·최혜진 첫 출격

LPGA 투어 게인브리지 박인비·이정은 등도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다 미국으로 무대를 옮긴 안나린(26)과 최혜진(23)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루키로 첫 대회에 나선다. 안나린과 최혜진은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미국 플로리다주 보카라톤의 보카 리오 골프클럽(파 72·6701야드)에서 열리는 게인브리지 LPGA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부터는 2022시즌 신인들도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는데, 신인왕 후보로 꼽힐 만한 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경쟁을 시작한다. 선두 주자는 지난달 LPGA 투어 켈리파잉(Q) 시리즈를 1위로 통과한 안나린이다. K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두고 지난해 삼국랭킹 9위에 오른 안나린은 Q시리즈에서 안정적인 기량을 뽐내며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아 이번 시즌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떠올랐다.

KLPGA 투어에서 10승을 올리고 2018~2020년 3년 연속 대상을 차지한 최혜진은 Q시리즈 수석은 놓쳤으나 공동 8위에 올라 한참 전부터 버르던 미국 무대에 마침내 진출했다. 이들은 2주 전 미국으로 떠나 현지 적응과 훈련을 이어가며 데뷔전을 준비했다. 이들을 앞세워 한국은 2015년부터 지켜오다 지난 시즌 농친 LPGA 신인왕 탈환을 노리는데, 외국 선수들의 면모도 만만치 않다. 타이틀 방어전에 나서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 지난주 개막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교포 선수 대니엘 강(미국)을 비롯해 기존 강호들의 우승 경쟁도 이어진다. 신인 외에 한국 선수로는 개막전에서 공동 8위에 오른 박인비(34)를 필두로 이정은(26), 전인지(28), 김아람(27) 등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통산 41승을 보유한 48세의 백전노장 카리 웹(호주)은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모처럼 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 후배들과 기량을 겨룬다. 연합뉴스



‘가자, 베이징으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왼쪽)이 25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에서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장에게 단기를 수여하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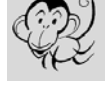
한국 여자축구, 아시안컵 8강 확정

27일 일본과 조 1위 경쟁 에이스 지소연 활약 주목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8강 진출을 확정된 가운데 디펜딩 챔피언 일본과 조 1위를 놓고 격돌한다. 콜린 벨(잉글랜드)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은 27일 오후 5시(한국시간)부터 인도 푸네의 시리 시브 차트라파티 종합운동장에서 일본과 여자 아시안컵조별리그 C조 최종 3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21일 베트남과의 1차전에서 3-0, 24일 미얀마와의 2차전에서 2-0으로 승리, 조별리그 2연승을 달렸다. 일본이 24일 베트남과의 2차전에서 3-0으로 이겨 미얀마와의 1차전(5-0)에 이어 2연승을 수확, 두 팀이 나란히 승점 6을 따내 최소 조 2위를 확보하며 8강을 확정했다. 이어질 한일전의 승자가 C조 1위를 차지하게 된다.

상위 5개 팀에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출전권을 주는 이번 대회에선 12개국이 3개 조로 조별리그를 치러 각 조 1·2위, 그리고 3위 팀 중 성적이 좋은 2개 팀이 8강에 진출한다. 운명의 갈림길에서 만나는 일본은 아시아 여자 축구의 대표적인 강호다. 1986년 이래 아시안컵 4강을 놓친 적이 없고, 최근 2개 대회(2014·2018년)에선 모두 결승에서 호주를 꺾고 우승을 차지해 이번 대회 타이틀 방어에 나섰다. 상대 전적도 31차례 맞붙어 일본이 17승 10무 4패로 한국에 크게 앞선다. 한국이 일본을 꺾은 건 2013년 7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경기에서 지소연(현시)이 2골을 넣어 2-1로 이긴 게 마지막이었다. 쉽지 않은 상대지만, 한국은 여전히 건재한 지소연을 앞세워 공략에 나선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리정 8:25 아침미담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9:45 KBS 뉴스 제주 10: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1:20 이슈 픽 생파 함께 스페셜 11:50 불편해도 편찮아 시즌2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00 KBS 아침 뉴스라임 9:20 국가대표 와이프(재) 10:00 인간극장 스페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주접이 풍년(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가진 해피플러스 8:50 두 번째 남편(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이 맛에 산다 11:15 푸라기 식사교실(재) 11:45 쥬라기캅스3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5 JIBS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설마나는 오늘 11:00 에니컬러리 11:30 스페이스 동요보감	8:00 당동당 유치원 8:30 한글용사 아이아 9:40 우리집 유치원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2:10 극한직업 16:00 마사와 곰 16:30 당동당 유치원 17:45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19:50 문명력 유치원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12 13:00 KBS네트워크특선 아미도 마지막 존재 13: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2022 베이징올림픽 특집 다시 보는 동계올림픽 명승부 15:40 팔도방송 스페셜 16:00 사시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5 우리끼리 직전타임(재) 13:3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3:5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또뽕V(재) 15:30 TV 유치원 16:00 UHD 환경스페셜(재) 17:00 도깨비 언덕에 왜 왔니? 17:15 옛조 고릴라 17:30 풀집 영화가 좋다 17:50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트레이서(재)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뽀빠뽀 뽀아뽀아 스페셜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 MBC 뉴스 17:10 테마여행 길 스페셜	12:00 SBS 12시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골 때리는 그녀들(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네모세모(재) 17:00 SBS 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전국 TOP10 가요쇼	KCTV 8:00 특종TV다터 9:00 KCTV 뉴스 9:30 물은 제주의 미래다 10:30 탐나는 보이스 14:30 세계의 99법상 16:00 KCTV 건강특집 17:40 KCTV 다큐스페셜 18:30 세계의 99법상 19:00 KCTV 뉴스 19:50 불특대인IN제주 제주CBS FM 93.3MHz 90.9MHz 7:00 김태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고대 청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뉴스종합뉴스 13:30 생명의 섬 17:05 시사메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한관승부 TBN제주교통 FM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2:00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0 달리는 라디오 20:00 탐나는 가요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제주 19:40 집중진단 제주 20:30 국가대표 와이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사랑의 패배기 20:30 박원숙의 같이 살아요 21:30 우리끼리 직전타임 22:40 갯마을	18:05 생방송 오늘 저녁 19:05 두 번째 남편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20주년 특별판 서프라이즈 비밀의 방 22:30 라디오스타	18:50 청년을 키우는 힘 제주의 더 큰 미래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40 달신이 속하는 사이 3	42년 사소한 다름이나 논쟁이 생기니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자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음주나 차량운전을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달콤함이 있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26일
	36년 사소한 다름이나 논쟁이 생기니 조심. 48년 동료나 동업자, 거래자의 일이 원활하지 못하다. 각별한 주의 요망. 60년 사소한 시비가 구설수가 되니 음주나 차량운전을 삼가고 조기 귀가가 좋다. 72년 달콤함이 있는 말에 현혹되기 쉬운 날. 장미꽃에 가시가 있다. 84년 애인에게 히든카드를 보이지 마라.
	37년 낙상이나 넘어져 다칠 수 있으니 조심. 49년 재물 손실이 있으니 자금관리 철저, 경영업체 등장. 61년 사업이나 진로개발 등 재물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다. 73년 약속이 중점되거나 시간이 같은 경우가 생기니 선약에 충실하라. 85년 기조가 튼튼해야 하니 매사를 꾸준히 다져 나가는 습관을 기른다.
	38년 든든한 내 자식의 자랑도 남이 해야 더욱 빛난다. 50년 치밀하고 꼼꼼하며 정확함이 돋보인다. 62년 기쁜 일에 참여하면 자녀나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고생이 있는 날. 74년 차량으로 인해 고생을 하니 운전 조심. 86년 소개 또는 중매가 들어와도 반갑지 않다. 배반 또는 배신수가 있으니 조심.
	39년 친인척의 불미스러운 일이나 격정스런 소식을 접한다. 51년 웃어른 일로 자금이 지출되거나 손재수가 있다. 63년 사업이 호전되고 직장인은 명예, 승진. 75년 남의 말에 현혹되거나 너무 들뜨면 구설에 시달리니 마음을 편하게 하라. 87년 이성교제나 모임이 주선되고 기쁨도 있다. 귀가는 가능한 늦지 않게.
	40년 이웃과 나눔을 갖거나 먹을 복이 있다. 52년 경력과 노하우로 사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재산을 증가시킨다. 64년 부부간에 다툼이 커지니 즉시 화해할 것. 76년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도 굵고 시기자가 생겼다가도 없어진다. 88년 대담하게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다. 외출이 기다리고 있다.
	41년 마음과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 53년 명예 또는 이익이 있다. 아랫사람과 대화도 필요하다. 65년 배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 요망. 77년 집안에 격정이나 근심이 있고 연락이 울 수 있으니 먼저 연락을 취하라. 89년 약속이 늘어나고 계획이 많으나 자질이 생긴다.
	42년 갈 곳 없이 많고 재물지출이 많다. 필요한 돈만 지참할 것. 54년 주변에 나를 알려려면 대인관계를 지속하라. 66년 솔직하고 화끈함을 좋아해도 비뚤은 나이에 치명타가 되지 마라. 78년 집안에 뒷사람 일로 걱정이 생기니 안부전화를 해드리면 좋다. 90년 친구나 이웃과 모임이 생기면 참석하라.
	4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다면 풀려라. 골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55년 직장에서의 기쁜 일이 있거나, 급금계약이 있다. 67년 이성교제나 새로운 이성문제 또는 사회활동에 참여하려고 갈등. 79년 동료, 친구와 협력하면 좋은 대역이 있고 아이디어가 샘솟는다. 91년 의욕이 증가하여 무슨 일든 하고 싶어한다.
	44년 좋은 일 속해 있음이 도사리나 밀어붙이는 것은 자중해야 한다. 56년 명예나 인간관계 처세술이 뛰어나고 하는 일이 좋아진다. 68년 아이디어로 승부하거나 기획력에 인정받는다. 80년 시련, 공부는 좋으나 직장인은 갈등, 고심. 92년 관청에 할 일이 있어 외출을 하거나 친구를 소식을 접한다.
	45년 사회생활은 좋으나 가정적 근심수가 오니 귀가는 늦지마라. 57년 집안에 근심이 오니 안부전화가 필요. 부부간 시댁, 처가문제로 논쟁한다. 69년 자녀일로 고민하거나 상의할 일이 생긴다. 81년 가정불화, 애정관계 문제있으니 이해하고 배려 필요. 93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으니 투기는 중지하는 게 좋다.
	46년 자녀에 혼담이 오거나 상견례가 오갈 수 있다. 58년 책임분야 능력을 인정받고 순조롭다. 다만 자녀로 인해 부모는 마음만 급하다. 70년 소개 또는 중매를 받아 바쁜 하루가 된다. 82년 호기심이 발동하고 구매의욕이 커진다. 94년 의욕이 상승하나 계획추진은 지연되는 모습으로 심사숙고 필요.
	47년 자녀에게 편안함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때론 필요하다. 59년 자신 일보다 자녀로 인한 마음, 전전긍긍. 71년 멧을 내고 외출하려 한다. 이성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크다. 83년 취입등 직장내 업무로 바쁘고 분주하다. 95년 힘이 들어도 내색하면 힘이 더 빠진다. 변동하는 것은 신중을.